

달항아리(Moon Jar)의 중국어 명칭 표준화 연구

— 중문 표기 현황과 기형(器形) 분류 비교를 중심으로

어호연* · 이아형**

목 차

1. 서론
2. 달항아리 명칭의 형성과 한·중 번역의 문제점
 - 1) 백자 달항아리 조형·용어사(史) 연구
 - 2) 문화소 명명과 번역 지침에 관한 연구
 - 3) 한국 기관의 문화재 용어 중문(中文) 표준화 현황 및 한계
 - 4) 중국 도자 용어의 표준화 현황 및 분류 체계
3. 중국 도자 용어 표준 및 기형(器形) 분류 분석
 - 1) 이론적 배경
 - 2) 한·중 도자 용어의 역사적 분화와 의미의 비대칭성
 - 3) 기형학적 정의 비교와 검증:
호(壺)·관(罐)·항(缸)·준(樽)을 중심으로
 - 4) 언어인지학적 분석
4. 달항아리 중문 번역 전략 및 표준안 제안
 - 1) 제안 원칙: 표준성과 고유명사화
 - 2) 제안 표준 번역안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최근 K-Art의 상징으로 부상한 조선 백자 달항아리(Moon Jar)의 중문 번역 명칭이 명확한 기준 없이 난립하는 현상을 진단하고, 중국의 공식 문물 등재 표

* 부산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중전공 석사 수료생(제1저자)

** 부산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중전공 부교수(교신저자)

준과 기형 분류학적 정의를 분석하여 학술적 종합성과 대중적 파급력을 동시에 충족하는 표준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현재 달항아리의 중문 표기는 한국어 원어의 다층성과 번역 기준의 부재가 맞물려 다 대 다(Many-to-Many)의 복합적 혼란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통용되는 일부 표기는 중국어권에서 원어(ST)가 지닌 예술적, 형태적 가치에 반하는 오역의 가능성을 내포하거나, 기물의 위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국가 및 단체 표준, 명칭 용례, 그리고 관련 학술 문헌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기형 명칭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어 관습인 ‘호(壺)’는 현대 중국어 도자 분류에서 주구(물코, 流)와 파수(손잡이, 柄)를 갖춘 주전자로 통용되어 달항아리의 기형과 불일치하며, ‘항(缸)’은 기형적 불일치와 위상의 격하 가능성을, ‘준(尊)’은 용도 및 형태적 정의의 부조화를 초래한다. 반면, ‘관(罐)’은 구연부가 넓고 배가 풍만하고 깊은 저장 용기로서 달항아리의 형태적 특징과 정합하는 최적의 대안임이 규명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번역학의 등가성 이론, 개념 기반 용어학, 스코포스 이론을 적용하여, 대중적 소통과 현대 예술 전반으로의 재해석 및 확산을 고려한 기본형 ‘月亮罐(달항아리)’, 재질과 기법 등의 속성에 따라 유연하게 변용 가능한 확장형 [속성]+月亮罐(~달항아리), 그리고 조선 백자 달항아리의 역사적·예술적 정체성을 갖춤과 동시에 중국의 도자 명명 기준에도 부합하는 학술형 ‘朝鮮王朝白瓷月亮罐(조선왕조 백자 달항아리)’의 3단계 표준 번역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기형 분류학적 실증 분석을 통해 기존 표기의 한계를 규명하고, 번역학적 이론을 적용하여 달항아리의 문화적·예술적 정체성을 중국어권 내에서 명확히 정립하고 확산시키는 실무적 학술 토대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키워드: 달항아리, 백자대호(白磁大壺), 월량관(月亮罐), 용어 표준화, 도자 용어, 중국 기형 분류

1. 서론

21세기 이후 조선 후기 백자대호(白磁大壺), 즉 오늘날의 ‘달항아리(Moon Jar)’¹⁾는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2023년 3

월 뉴욕 크리스티(Christie's) 경매에서 18세기 조선 백자 달항아리가 당시 추정가(100만~200만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456만 달러(한화 약 60억 원)에 낙찰되었다²⁾. 이는 달항아리가 고미술 시장에서의 희소성을 넘어, 글로벌 아트 시장에서 독자적인 미학적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실증하는 사례이다.

이러한 위상 변화는 대중문화와 현대 미술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대가 달항아리를 모티프로 제작되었다는 사실³⁾은, 이것이 '한국다움'을 표상하는 국가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또한 BTS의 RM이 권대섭의 달항아리를 소장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최영욱의 달항아리 회화(Karma)를 구매한 사례는 달항아리가 단순한 유물을 넘어 현대적 영감의 원천으로 활발히 재생산 및 소비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서구인들이 달항아리를 수용하는 방식 또한 주목할 만하다. 1935년 영국의 도예가 버나드 리치(Bernard Leach)는 달항아리를 구입해 귀국 길에 오르면서 “행복을 안고 갑니다”라며 감탄하였는데⁴⁾, 이는 달항아리의 조형미가 서구인들에게 정서적 행복감으로 치환되었음을 보여주는 초기 사례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대에 이르러 더욱 심화되었다. 영국의 배우 주디 덴치(Judi

1)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달항아리'는 17~18세기 조선 관요에서 제작된 '백자대호(白磁大壺)'를 의미한다. 해당 기물의 공식 명칭은 2011년 11월 1일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 고시 제2011-134호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지정명칭 변경」에 따라, 고시에 따라 기존의 학술 분류적 명칭인 '백자대호'에서 대중적·미학적 명칭인 '백자 달항아리'로 지정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편의와 통칭적 성격을 고려하여 재질 수식어를 생략한 '달항아리'로 약칭한다.

2) 크리스티 뉴욕(Christie's New York), 'Japanese and Korean Art' (2023. 3. 21), Lot 177. 당시 낙찰가는 4,560,000 USD(구매자 수수료 포함)로, 이는 해외 경매에서 거래된 한국 도자기 중 역대 최고가이다.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대는 한국의 디자이너 김영세가 디자인하였으며, 조선 백자 달항아리의 형태와 비우는 미학을 모티프로 하여 '타오르는 불꽃을 품은 달항아리'를 형상화하였다. (참고: 윤경재, 『평창 성화대를 달항아리로 만든 이유?』, 『중앙일보』, 2018년 4월 2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486668>).

4) 유흥준, 『유흥준의 한국미술사 강의 5: 조선 도자』 (눌와, 2023), p.153.

Dench)는 박영숙의 달항아리 앞에서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듯하다”고 고백하며⁵⁾ 이를 치유와 명상의 오브제로 받아들였다. 즉, 달항아리는 ‘비대칭의 조형미’라는 형식적 분석을 넘어, 현대인의 심리적 결핍을 메우는 ‘치유적 미감’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⁶⁾

최근 달항아리(Moon Jar)가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급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칭하는 용어와 중문 번역 표기는 여전히 구조적인 혼란 속에 있다. 국내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학술적 분류 명칭인 ‘백자대호(白磁大壺)’와 근대 이후 형성된 미학적 별칭인 ‘달항아리’가 제도적·관습적으로 혼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원어(ST)의 이중성은 중국어 번역 과정에서 ‘多 대 多(Many-to-Many)’의 번역 난립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달항아리는 중국어로 ‘白磁大壺(백자대호)’, ‘月亮罐(월랑관)’, ‘滿月罐(만월관)’, ‘月缸(월항)’ 등으로 무원칙하게 번역되고 있다.

5) 영국의 배우 주디 덴치(Judi Dench)는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V&A) 방문 당시 박영숙 작가의 달항아리를 보고 "It is so calming... I could stare at it all day(너무나 평온하다... 하루 종일이라도 쳐다보고 있을 수 있겠다)"라고 평하며, 박물관 소장품 중 단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이 작품을 선택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참고: 정형모, "백자에 인생 건 그녀... 60cm 달항아리 폼다", 『중앙일보』, 2012년 3월 7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7558947>).

6) 달항아리의 ‘비정형성’은 제작 공정상의 기술적 한계와 우연성이 결합된 결과이다. 이토 이쿠타로(Ito Ikutaro, 伊藤郁太郎, とういくたろう)(2005)는 조선 중기 백자대호가 상·하부를 접합하는 과정에서 미묘하게 어긋난 특징을 언급하며, “이러한 불완전함이 보는 각도에 따라 형태가 조금씩 달라 보여 하나의 항아리임에도 불구하고 열 개의 항아리를 가진 듯 즐겁다”며 독보적인 조형미를 만들어낸다고 분석하였다.

여기에 현대적인 해석을 더한 이준광(2025)은 “달항아리는 크기가 크다 보니 종종 가마 안에서 중심을 잃고 기우뚱한 모양새로 완성된 경우가 다수 전해진다”라고 설명하였다. 현대 관람객과 작가들이 달항아리를 단순한 유물이 아닌 영감의 원천으로 대하는 현상을 포착하며, “자신만의 해석을 더해 달항아리 본래의 가치에 새로운 가치들이 덧입혀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달항아리는 고정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보는 이의 해석에 따라 끊임없이 의미가 확장되는 ‘열린 텍스트’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명칭	영문명칭	소장품 번호	출처
白磁大壺	moon jar	1999.0302.1	British Museum
月亮壺	Moon jar	1979.413.1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月亮罐	moon jar, dalhangari	-	中國古代藝術學會(Society for the Ancient Chinese Art)
满月形白瓷罐	White Porcelain Moon Jar (Treasure No. 1437)	접수702	국립중앙박물관 중문 사이트
月缸	moon jar	-	한국미술 다국어 용어사전
韓國白釉滿月花罐	white-glazed moon jar	-	Sotheby's

표 1. 달항아리 중문 번역 현황

이러한 명칭의 혼란은 한국 문화를 해외에 전파하는 국가 공공기관의 자료에서도 드러난다.

구체적인 사례로 주홍콩한국문화원이 2024년 9월 배포한 ‘제14회 홍콩 한국10월문화제’ 보도 자료에서는 ‘달항아리’의 중문 명칭을 ‘월량호(月亮壺)’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2023년, 해외문화홍보원이 주관·주최·발행하고 주홍콩한국문화원 등에서 배포한 『2023 한·중·일 공예전-화이부동』의 공식 웹도록과 관련해서는 더욱 복잡한 혼란 양상이 나타난다. BTS의 RM이 소장하여 화제가 된 권대섭 작가의 달항아리를 소개하며, 게시글 본문 설명에서는 ‘월량관(月亮罐)’으로, 도록 내 작가 및 작품 설명에서는 ‘백자대호(白瓷大壺)’와 ‘월량호(月亮壺)’로, 그리고 작품 캡션에서는 한국어로 ‘백자대호(달항아리)’ 그리고 중국어로 ‘白瓷大壺’로 표기하는 등, 하나의 작품 관련 텍스트에서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용어(月亮罐, 白瓷大壺, 月亮壺)가 혼용되고 있었다.

이는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문화를 홍보하는 기관조차 ‘달항아리’에 대한 명확한 중문 표기 지침을 갖추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문제는 이러한 용어들이 단순히 다양하게 불리는 것을 넘어, 수용자에게 기물의 ‘형태적 범주’를 오인하게 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어 ‘대호(大壺)’를 직역한 중국어 ‘大壺’는 중국 도자 분류 체계에서 달항아

리와 같은 둥근 저장 용기가 아닌, 손잡이(鑿, Handle)와 물코(流, Spout)가 달린 ‘주전자(Ewer)’를 지칭하는 용어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⁷⁾

이는 실제 눈으로 보는 기물의 형태(Prototype: 둥근 항아리)와 언어로 지칭되는 명칭(Frame: 주전자) 사이에 인지적 불일치(Cognitive Mismatch)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명칭의 혼란과 범주 불일치는 단순한 오역의 가능성을 넘어, 게티 어휘(Getty Vocabularies)와 같은 국제 미술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의 검색 효율성을 저해하고 정보의 고립을 야기하는 실질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달항아리 명칭의 혼재 실태와 번역의 구조적 난맥상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제2장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백자 달항아리(Moon Jar)의 중문 명칭이 통일된 기준 없이 다층적으로 혼재되어 나타나는 원인을 구조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대한 중문 표준안을 수립하고 제안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공식 문물 등재 표준 및 도자 기형 분류학을 개념 기반 용어학의 객관적 준거로 삼아, 현재 통용되는 여러 번역어들의 기형학적 적합성을 검증하고, 나이다의 등가성 이론과 스코포스 이론을 적용하여 도자 용어로서 갖추어야 할 학술적 정합성과 ‘달항아리’라는 고유한 미학적 브랜드 가

7) 중국 도자 분류 체계에서 ‘壺(호)’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 특히 서진(西晉) 시기를 기점으로 ‘壺(호)’는 “몸체 한쪽에 주구(流)가 있고, 반대쪽에 손잡이(鑿)가 달린” 주전자(Ewer)의 형태로 그 개념이 진화·고착화되어 현대에까지 이르고 있다.

馮先銘 主編, 『中國古陶瓷圖典』(文物出版社, 1998), p.146,

“壺 陶瓷容器。歷史上被稱為壺的器物在不同時期有不同造型和功能... 西晉的鷄首壺……首開器身一側有流、一側裝鑿的新式壺的造型。至唐代，短流的執壺已成為普遍的實用器皿。這類壺幾經變化，一直延用至今。”

호(壺) 도자 용기이다. 역사적으로 ‘호’라 불린 기물은 시기마다 다른 형태와 기능을 가졌다. 서진(西晉)의 계수호(鷄首壺, 닭머리 장식 호)는…… 몸체 한쪽에 주구(流)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손잡이(鑿)가 장착된 신식 호(壺)의 조형을 처음으로 열었다. 당대(唐代)에 이르러, 짧은 주구가 달린 집호(執壺, 손잡이 호)는 이미 보편적인 실용 기명이 되었다. 이러한 류의 호는 몇 번의 변화를 거쳐 오늘날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다.

치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중문 표기 표준안을 도출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표준화 제안을 통해 한·중 도자 문화 교류의 명확한 소통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 문화재 명칭 번역의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달항아리 명칭의 형성과 한·중 번역의 문제점

본 장에서는 연구 대상인 ‘달항아리’를 지칭하는 한국어 명칭이 형성된 역사적 배경과 혼재 양상을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20세기 전반에 정착된 학술적 분류 명칭인 ‘백자대호(白磁大壺)’와 20세기 중반 이후 형성된 미학적 고유명사인 ‘달항아리’가 공존하게 된 경위를 추적하여, 번역의 출발어(SL)가 내포한 개념적 중층성을 분석하고, 중국어 번역의 구조적 난맥상을 살펴본다.

명칭	별칭	소장품 번호	출처
백자 달항아리	보물 백자 달항아리(2005), 백자호(白磁壺), 백자 대호(白磁大壺)	접수702	국립중앙박물관
달항아리	백자호(白磁壺)	신수14621	국립중앙박물관
백자 큰 항아리	백자 대호(白磁大壺)	증7315	국립중앙박물관
백자 항아리	백자호(白磁壺),	증7063	국립중앙박물관
백자대호 (白磁大壺)	-	건희1568	국립중앙박물관
백자원호 (白磁圓壺)	-	-	김규림(2019), '조선 17~18세기 백자원호(白磁圓壺)의 조형과 성격', <한국문화연구> 36권 36호 일제시대,

			마루즈보(圓壺)
백자호 (白磁壺)	조선시대 백자대호	-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유산

표 2. 달항아리 국내 용어 사용 현황

1) 백자 달항아리 조형·용어사(史) 연구

근대 이후 한국 도자 용어의 형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일제강점기 분류 체계의 이식(移植)과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된 국어 순화(醇化)의 노력, 그리고 근대적 미학의 재발견이라는 다층적 층위에서 논의되어 왔다.

김현아(2014)는 식민지 시기 이왕가박물관과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발간한 자료를 분석하여, 현재 한국에서 통용되는 도자 용어의 83.58%가 일제강점기에 유입된 일본식 한자어임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그는 이러한 용어의 이식이 단순한 명칭의 변화가 아니라, 조선의 도자기를 식민지 지배 이념에 부합하는 ‘박물관 소장품’으로 타자화하는 기제로 작동했음을 지적하였다.

김규림(2019)은 17~18세기 ‘백자대호(白磁大壺)’를 연구하며, 근현대에 자리잡은 학술 명칭인 ‘백자대호(白磁大壺)’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둥근 형태를 보고 붙인 ‘마루즈보(圓壺)’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는 『승정원일기』 등의 문헌을 통해 당시에 ‘백항(白缸)’이 사용되었음을 고증하고, ‘달항아리’는 해방 이후 김환기 등에 의해 부여된 미학적 애칭으로, 2011년 문화재청의 명칭 변경이 이러한 대중적·미학적 인식을 수용한 결과임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2011년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칭을 ‘백자대호’에서 ‘백자 달항아리’로 변경 고시(제2011-134호)하게 된 학술적·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며, 도자 용어의 타율성을 극복하고 기물의 실체에 부합하는 명칭을 정립해야 할 당위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한국어 명칭이 ‘백자대호’에서 ‘달항아리’로 변천해

은 내재적 과정을 규명하는 데는 기여했으나, 이러한 변화가 중국이나 일본의 도자 용어 분화 과정과 어떠한 상관관계 혹은 괴리를 갖는지에 대한 ‘비교문화적 통시성(Cross-cultural Diachronicity)’의 관점까지는 확장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제3장 2절에서 한·중 양국의 용어 분화 과정을 대조하여, 한국 도자 용어의 역사적 분화(Historical Divergence)와 의미의 비대칭성(Semantic Asymmetry) 원인을 심층 분석할 것이다.

2) 문화소 명명과 번역 지침에 관한 연구

문화재 명칭의 번역 전략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뉴마크(Newmark)나 에이첼라(Aixelá) 등이 제시한 문화소(Culture-Specific Items, CSI) 번역 이론을 기반으로, 음역(Phonetic Translation), 직역(Literal Translation), 대응역(Correspondence Translation), 의미역(Semantic Translation), 혼합역(Mixed Translation) 등 다양한 층위에서 원어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론적 층위에서 논의되어 왔다.

또한 문화재청의 『문화재명 외국어 표기 기준 마련 연구』(2010) 학술연구에서 이어진 『2014년 문화재명칭 영문 표기 용례집』(2014)과 『2019년 문화재명칭 영문 표기 용례집』(2019), 국립중앙박물관의 『2015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품 명칭 용례집』(2015) 등 기존의 제도적 연구 성과들은 국제적 통용성이 시급한 영문 표기 기준 수립에 편중되어 있어, 중문 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번역 방법론이나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실정이다.

한편, 김혜림(2014, 2022)은 『중국어 통역번역사전』 등을 통해 다양한 용어의 한·중 번역 기틀을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하지만 도자 분야에 있어서는 극히 일부분 6개 용어의 표면적인 대조에 머물렀으며, 데이터의 확충이 미비하여 달항아리와 같은 기형과 미학적 속성이 결합하여 탄생한 고유명사적 성격의 용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3) 한국 기관의 문화재 용어 중문(中文) 표준화 현황 및 한계

국내 공공 및 유관 기관들은 한국 문화재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용어 표준화를 시도해 왔으나, 그 성과는 주로 영문 표기에 집중되었다. 중문 표기의 경우 기형학적 전문성이 결여된 한계를 보인다.

(1)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 기준의 부재와 관리의 사각지대

문화재청은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용례집』을 발간하여 ‘Moon Jar’와 같은 영문 표기 기준을 정립하였다. 그러나 중문 표기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연구 결과물이나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국가유산포털 등 대국민 서비스에 제공되는 중문 명칭은 통일된 원칙 없이 한국식 한자어 독음을 그대로 차용하거나, 구식 표기가 혼재되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는 중화권 수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재 명칭의 국제적 표준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국립중앙박물관: 표기의 파편화와 브랜드 혼선

국립중앙박물관 역시 2015년 『전시품 명칭 용례집』을 발간하여 문화재 용어의 영문 표기를 체계화하였으나, 중문 표기에 대한 표준 지침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박물관의 도록이나 중문 웹사이트에서는 기형을 설명적으로 풀어쓴 ‘滿月形白瓷罐’이나 관습적 표기인 ‘白磁大壺’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일관된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3) 예술경영지원센터: 기준의 오류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발간한 『한국미술 다국어 용어사전』(2023)은 달항아리의 중문 대역어로, 해당 용어의 의미를 중심으로 풀어 번역한 ‘月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도자 분류 체계(DB11/T 1219.3-2022)⁸⁾에서 ‘缸’은 기형 분류 코드의 최하단(Code 29)에 위치하며, 샤먼시 표준(T/GYSP 2-2017)에서도 상세 정의가 생략될 만큼 주로 물이나 곡식을 담은 실용 용기(Vat)로 인식된다. ‘Moon Jar’의 ‘Jar’를 사전적으로 직역하는 과정에서 해당 단어가 중국 문화 내에서 갖는 실용적 뉘앙스와 위상을 간과한 결과로, 조선 백자의 예술적 가치를 ‘물독, 욕조, 어항’ 수준으로 격하시킬 위험이 있는 오역의 범주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비판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분석은 제 3장에서 상술하도록 한다.

4) 중국 도자 용어의 표준화 현황 및 분류 체계

중국은 국가, 지방, 협회 차원의 다양한 표준을 통해 도자류를 포함한 문화재 명칭을 체계적으로 범주화하고 있으며, 특히 ‘호(壺)’와 ‘관(罐)’의 개념적 경계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위계적 분류 체계를 정립하고 있다.

첫째, 최상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중국 국가 표준인 중국 국가문화유산국의 『관장 문물 등록 규범(館藏文物登記規範)』⁹⁾은 유물 명칭 부여의 기초적인 구조적 원칙을 제시하여 명명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 이를 구체화한 베이징시의 『문물 예술품 데이터 요소 규범(文物藝

8) 北京市市場監督管理局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 『文物藝術品數據元規範 第3部分：陶瓷 (Specification for data elements of antique art — Part 3: Pottery and porcelain)』, DB11/T 1219.3—2022, 2022

9) 中華人民共和國國家文物局 (중국 국가문화유산국), 『館藏文物登記規範 (Specification for registration of cultural relics in the collection of cultural institutions)』, WW/T 0017—2013, 2013.

術品數據元規範』¹⁰⁾은 도자 명칭을 기형별로 코드화하여 분류의 정밀성을 높였다. 해당 규범은 ‘준(尊, Code 02)’ ‘호(壺, Code 03)’ ‘관(罐, Code 04)’을 하위 세부 분류가 존재하는 독립된 상위 코드로 확정하였다. 반면 ‘항(缸, Code 29)’은 하위 코드 없이 ‘기타(其他, Code 99)’ 항목 직전에 배치된 단일 리스트로 처리하여, 앞선 세 기형과는 층위가 다른 기형임을 알려주고 있다.

셋째, 샤먼시의 『고도자 샘플 명명 규칙(古陶瓷樣品命名規則』¹¹⁾은 기형별 구체적 정의와 하위 종류를 서술한다. 이 규칙은 ‘호(壺)’, ‘관(罐)’, ‘준(尊)’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와 하위 분류를 제시하지만, ‘항(缸)’은 아예 분류 항목에서 제외함으로써 ‘호(壺)’와 ‘관(罐)’이 갖는 형태적 범주를 더욱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번역협회의 2025년 최신 표준인 『중국 문화유산 분야 영문 번역 표기 규범(中國文化遺產領域英文譯寫規範』¹²⁾은 이러한 기형적 구분을 영문 번역어의 차이로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해당 표준에서 제시하는 한영 도자 명칭 번역 사례는 ‘호(壺)’와 ‘관(罐)’의 기형적 분류 기준이 언어적 차원에서조차 유효함을 실증한다.

이러한 중국의 분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모든 ‘호(壺)’류를 중국어 ‘호(壺)’로 직역하거나 ‘항(缸)’으로 표기하는 것은 원어의 문화적·예술적 특징을 왜곡할 소지가 크며, 기형학적으로도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용어 간의 ‘범주적 불일치’에 주목하여, 제3장 3절에서 이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0) 北京市市場監督管理局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 『文物藝術品數據元規範 第3部分：陶瓷 (Specification for data elements of antique art — Part 3: Pottery and porcelain)』, DB11/T 1219.3—2022, 2022

11) 廈門市古代藝術品研究會 (샤먼시 고대예술품연구회), 『古陶瓷樣品命名規則 (Rules of nomenclature for ancient ceramic samples)』, T/GYSP 2—2017, 2017.

12) 中國翻譯協會 (중국번역협회), 『中國文化遺產領域英文譯寫規範 (Specifications for the use of English for Chinese cultural heritage)』, T/TAC 12—2025, 2025.

3. 중국 도자 용어 표준 및 기형(器形) 분류 분석

1)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한·중 도자 용어의 불일치를 규명하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의 번역학 이론을 분석의 준거로 삼는다.

첫째, 번역 등가성(Equivalence)의 재정립 측면에서 유진 나이다(Eugene Nida)의 등가성 이론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백자대호(白磁大壺)’ 번역은 원어의 한자 표기를 기계적으로 그대로 치환한 ‘형식적 등가(Formal Equivalence)’에 해당한다. 한국어에서 ‘호(壺)’가 항아리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나, 현대 중국어에서 그 의미의 범주는 ‘주전자’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적 직역은 지시 대상의 불일치를 야기한다.

이에 본 연구는 원문(달항아리)이 지닌 심미적 가치와 기형적 정보를 중국인 수용자에게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동적 등가(Dynamic Equivalence)’ 확보를 목표로 한다.

둘째,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개념 기반 용어학(Concept-based Terminology)’을 도입한다. 도자 용어의 번역은 표층적인 단어(Word)의 치환이 아니라, 그 단어가 내포한 개념(Concept)을 도착어로 옮기는 과정이다. 도자 용어에서 ‘개념’의 실체는 곧 기물의 물리적 형태인 ‘기형(Typology)’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언어적 표기를 넘어서 실제 기물의 형태적 개념을 비교 분석하여 기형학적으로 타당한 등가어를 도출할 것이다.

셋째, 언어 사용자의 인식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원형 이론(Prototype Theory)’과 ‘프레임 의미론(Frame Semantics)’을 적용한다. 이는 중국어 화자가 ‘호(壺)’라는 단어에서 연상하는 시각적 원형(주전자)과 ‘항(缸)’에서 연상하는 의미 프레임(윗면이 크고 넓게 벌어진 실용 용기)을 분석하여, 해당 용어들이 문화적 그리고 예술적 가치를 지닌 달항아리의

번역어로 부적합함을 규명하는 인지적 근거로 제시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달항아리라는 ‘문화소’를 번역함에 있어 고유성(달/月亮)과 수용성(관/罐)의 균형을 모색한다¹³⁾. 이는 한국적 정서와 미감을 살리는 ‘이국화(Foreignization)’ 전략과 현지 도자 분류 체계를 따르는 ‘자국화(Domestication)’ 전략을 결합한 절충적 접근으로, 제4장에서 제안할 표준안 수립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2) 한중 도자 용어의 역사적 분화와 의미의 비대칭성

한중 도자용어 중 ‘호(壺)’의 의미 분화를 살펴보면 다음 <표3>과 같다.

중국	한국
<p>[한~육조]</p> <p>· 호(壺): 광의의 용기. 주전자와 항아리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용기 개념 (예: 반구호, 타호) · 관(罐): 드물게 사용됨 *출처: 《中国古陶器图典》</p>	<p>[삼국시대]</p> <p>· 중국의 한자 용어를 받아들여 토기 항아리를 ‘호’ 등으로 지칭하기 시작함.</p>
<p>[당~송]</p> <p>[분화의 시작]</p> <p>· 주자(注子): 별도 명칭으로 주전자 기능이 구체화되면서 개념이 다소 축소됨 · 관(罐): 입 넓은 저장 용기가 독립된 기형으로 등장 (예: 송대 개관) *출처: 《中国古陶器图典》</p>	<p>[고려시대]</p> <p>· 고려청자의 주전자는 ‘주자(注子)’라 불렸으나, 항아리는 여전히 ‘호’의 범주 및 ‘항’의 범주 혼재</p>

13) Lawrence Venuti,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1995). 베누티는 번역 전략을 원문 문화를 도착어 문화에 편입시키는 '자국화(Domestication)'와 원문의 이질성을 보존하는 '이국화(Foreignization)'로 대별하였다. 본 연구는 기형 명칭에는 ‘관(罐)’을 따르는 자국화를 기본으로 하되, 고유 명칭에는 ‘월량(月亮)’이라는 이국화 요소를 도입하는 균형적 혼합 전략을 취한다.

<p>[명~청]</p> <p>[분화의 정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壺) = 주전자: 명대 이후 차를 우려 마시는 방법이 대중화 되면서 주전자 의미로 특화. · 관(罐) = 저장/감상용 항아리: 천자관, 장군관 등 저장/감상용 항아리의 표준 명칭으로 정착. <p>*출처: 《中国古陶瓷图典》</p>	<p>[조선시대]</p> <p>백자 항아리류를 백항(白缸)으로 기록한 사례 다수, 항아리류는 호, 항 중심이나 관도 등장 (陶罐), 壺·罐·缸·尊 범주 혼재</p> <p>*출처: 승정원일기, 실록, 의례</p>
<p>[현대]</p> <p>[표준의 완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 Ewer / Pot · 관: Jar (달항아리 형태) <p>*출처: 베이징 고궁, T/TAC 표준</p>	<p>[20~21C]</p> <p>[식민지 잔재 + 혼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강점기 일본식 분류(츠보=호)가 더해져 백자대호가 학술용어로 굳어짐 <p>*출처: 김현아(2014), 김규림(20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적으로는 달항아리로 불리나, 중문 번역 시 호를 직역하는 오류 범함

표 3. 한국과 중국 도자 용어 발전 과정

위의 <표3>에서 보는바와 같이 한국어 ‘항아리’는 어원적으로 ‘항(缸)’에서 유래했으나, 현대 한국어에서는 용기(김치독)부터 국보급 백자(달항아리)까지 포괄하는 ‘상위 범주(Superordinate Category)’로 의미가 확장되고 격이 상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어 ‘항(缸)’은 DB11 표준에서 코드 최하위(29번)에 배치되고, T/GYSP 표준에서 별도의 정의조차 생략될 만큼 ‘도자 예술품’ 분류에서는 주변부에 위치하며, 여전히 ‘물독/실용기’라는 ‘한정적 의미(Restricted Meaning)’가 강하다.

어원적으로 한국어 ‘항아리’가 한자 ‘항(缸)’과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현대 한국어 ‘항아리’는 질그릇에서 백자까지 아우르는 ‘범용적 기형 명칭’으로 의미가 확장된 반면, 중국어 ‘항(缸)’은 실용적 도기류에 주로 국한되는 ‘의미의 한정성’을 띤다.

따라서 한국어 ‘항아리’를 어원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어 ‘항(缸)’으로 기계적 환원(Etymological Reduction)을 시도하는 것은, 원어의 포괄적이고

심미적인 위상을 도착어의 협소한 하위 범주(실용 용기)로 축소시키는 ‘의미의 격하(Semantic Degradation)’ 혹은 ‘화계(Register)의 불일치’를 초래하는 부적절한 번역 전략이다.

3) 기형학적 정의 비교와 검증: 호(壺)·관(罐)·항(缸)·준(尊)을 중심으로

본 절에서는 중국 도자 용어의 분류 체계를 ‘제도적 표준(Standards)’과 ‘학술·실무적 전형(Academic & Practical Archetypes)’의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해보겠다.

(1) [국가 표준 명명 구조의 원칙 확인: WW/T 0017-2013]

중국 국가문물국이 제정한 산업 표준으로 유물 명칭이 기본적으로 [연대(年代)] + [특징(特征)] + [통칭(通称)]의 구조를 갖춰야 함을 대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표 E.1]의 자기(瓷器) 명명 원칙에 따르면, 마지막 요소인 ‘통칭’은 반드시 해당 기물의 실제 형태 및 기능과 일치하는 일반 명사를 사용해야 한다.

[年代] + [特征] + [通称]

- a) 연대(年代): 유물의 제작 연대, 사용 연대, 형성 연대 혹은 생존 연대
- b) 특징(特征): 유물의 주요 특징으로, 주제 문양, 공예 기법, 내용, 재질, 작가, 산지, 소유자 이름, 민족명, 국가명 등 고유 속성
- c) 기물의 통칭(器物的通称): 해당 기물을 부르는 일반적인 명칭

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관습적으로 사용되어 온 번역어 ‘白磁大壺’는 유물의 실제 형태와 기형 명칭의 통칭이 불일치하므로, 유물 명명 구조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白瓷月亮罐’의 경우, ‘[白瓷(재질)] + [月亮(특징/달의 형상)] + [罐(통칭/기형)]’의 구조를 갖추며, ‘罐’이 기물의 형태와 부합하므로 명명 규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c) 기물의 통칭’ 자리에 형태와 기능이 일치하는 ‘罐’을 사용하여, 고유명사화된 ‘月亮罐’을 사용하는 것이 중국의 명명 표준에도 부합하는 명명이라 할 수 있겠다.¹⁴⁾

(2) 베이징시 표준 분류 코드의 배타성: DB11/T 1219.3-2022

베이징시의 지방 표준은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 분류 체계를 보여준다.

분석의 핵심은 각 코드에 배정된 하위 기형들의 ‘지배적 속성’이다. 이 표준의 ‘기형 표시 코드표(표 B.4)’를 보면, ‘壺’는 코드 03, ‘罐’은 코드 04로 각각 독립된 상위 분류 항목으로 등재되어 있다.

코드 03(壺)의 하위 항목에는 唾壺, 執壺, 提樑壺 등 액체를 따르는 기능을 가진 기형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 코드 04(罐)의 하위 항목에는 天字罐, 四季罐, 蔣軍罐 등 주구와 파수가 없는 저장 용기(Storage Vessel)들이 일관되게 배치되어 있으며, 그 형태적 유사성도 보인다.

이러한 분류 체계 내에서 한국의 달항아리(백자대호)를 어느 코드로 분류할 것인지는 ‘범주적 적합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물론 역사적으로 ‘壺’의 범주 안에 항아리와 유사한 형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달항아리는 ‘罐(Code 04)’의 핵심 속성인 ‘저장 기능’ 및 ‘원형의 몸체’와는 일치하는 반면, ‘壺(Code 03)’의 지배적 속성인 ‘따르는 기능’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굳이 다양한 형태가 혼재된 ‘복합 범주(壺)’에 편입시켜 모호성을 남기는 것보다, 형태와 기능이 일치하는 ‘단일 범주(罐)’로 분류하는 것이 데이터의 정합성과 분류의 명료성을 높이는 타당한 전략이라 볼 수 있겠다.

14) ‘壺’, ‘罐’ 등의 형태는 본절 (3)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3) [단체 표준] 형태적 정의 및 검증: T/GYSP 2-2017

앞서 국가 및 베이징 지방 표준이 분류 코드라는 거시적 틀을 제시했다면, 샤먼시 고대예술품연구회 표준(T/GYSP 2-2017)은 각 기형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 묘사를 담고 있어 보다 정밀한 대조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아래에서는 달항아리의 대역어로 사용되고 있는 壺, 甗, 罐과 더불어, 기형학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포함하고 있는 기형 카테고리 尊까지 총 4가지 기형의 적합성을 검토하기로 하겠다.

① 壺: 古代盛水器皿

본 표준은 ‘壺’를 ‘고대 성수(물 담는) 기명’으로 정의하며, 대표적 예시로 집호(주전자), 제량호, 계두호 등을 제시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壺는 액체를 따르거나 이동시키는 동적인 ‘주자(注子)’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물코와 손잡이 같은 돌출된 부속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이는 매끈하게 흐르는 원형의 몸체를 지닌 정적인 ‘저장 및 감상’ 용기인 달항아리의 형태적 속성과 기형학적 불일치를 드러낸다. 따라서 달항아리의 항아리 기형을 중국어 壺로 직역한 것은 나이다의 형식적 등가에 머무른 결과로 동적 등가 확보를 저해하는 사례이다.

② 甗

본 표준의 상세 설명표(表A.6 古瓷器常用裝飾技法)에서 壺, 罐, 尊 등이 주요 기형으로 분류되어 상세한 형태적 정의를 갖춘 것과 대조적으로, 甗은 해당 분류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도자 분류에서 甗이 고유한 조형미를 논해야 할 ‘예술적 감상’의 대상이라기보다, 별도의 정의가 불필요할 만큼 기능 중심의 실용 용기로 인식되거나 아예 논의의 범주 밖에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인지적으로 甗은 구연부가 밀지름이나 복부보다 크고 넓게 벌어진 투박한 질그릇이나 수조, 육조 등의

형태를 연상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순백의 고귀함과 절제미를 상징하는 달항아리에 표준 기형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은 甗를 사용하는 것은, 작품이 지닌 고유한 예술적 아우라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며 수용자에게 단순한 생활 용기로 오인될 소지를 남길 가능성이 크기에 적합한 대응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어 ‘항아리’의 예술적 상위 범주를 중국어 甗의 실용 하위 개념으로 환원하는 개념적 축소를 초래하며, 번역 시 고려해야 할 범주 불일치로 작용한다.

③ 甗: 甗在商周時作酒器; 北宋后期爲宮廷陳設用瓷。其形制爲敞口, 粗頸、深腹、圓底、圈足。

甗은 입이 넓고 배가 부른 형태적 유사성 때문에 일견 달항아리 기형의 대역어로 고려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표준의 정의와 기형의 태생적 기능을 분석해 보면, 달항아리와는 본질적인 층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우선 형태적으로 표준은 甗을 “입이 밖으로 벌어지고(敞口), 목이 굵으며(粗頸), 배가 깊은(深腹) 형태”로 묘사한다. 이를 정밀하게 대조해 보면, 달항아리의 구연부는 안으로 말리거나 곧게 선 ‘직구(直口)’이며 목이 짧은 ‘단경(短頸)’이다. 즉, 입이 밖으로 과시하듯 벌어진 甗과는 전체적인 실루엣의 지향점이 다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능적·태생적 기원의 차이다. 표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甗은 상·주(商·周) 시대의 술을 담는 예기(酒器)에서 유래하였으며, 북송 이후에는 궁정 진설용 자기가 되었다. 즉, 甗은 태생적으로 ‘의례’와 ‘과시’를 위한 기물로서 권위적이고 남성적인 뉘앙스를 강하게 풍긴다. 반면, 달항아리는 음식물을 보관하는 저장 용기인 甕에서 출발하여, 그 넉넉한 포용성을 통해 미적 승화를 이룬 기물이다. 따라서 예기(禮器)의 엄격함을 지닌 甗을 사용하는 것은, 달항아리 특유의 담백한 미감 및 실용적 태생과 정서적으로 충돌하므로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다.

④ 罐: 用以盛放或烹煮食物。造型特点是口徑大腹丰 且深, 脛部內收, 大底足。

본 표준은 罐을 “구경이 크고(口徑大) 배가 풍만하며(腹丰) 깊고(深), 굽이 큰(大底足) 조형 특징을 갖는다”라고 명시한다. 이는 ‘입이 넓고 배가 부른 둥근 항아리’라는 달항아리의 조형적 특징에도 부합한다. 나아가 罐은 天字罐이나 盖罐 등의 사례에서 보듯, 실용기를 넘어 황실용 명품 백자의 미학을 담아내는 예술적 명칭으로도 널리 통용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罐은 달항아리의 형태적 정확성, 저장 용기라는 기원적 기능성, 예술품으로서의 고유한 미적 가치와 위상을 모두 만족하는 표준 용어에 적합하다 할 수 있다. 罐은 형태·기능 등가성을 확보한 동적 등가의 모범으로, 4장에서 제안하는 3단계 명칭 체계의 핵심 기형어로 기능한다.

(4) 중국번역협회 표준 (T/TAC 1-2018)

앞서 살펴본 기형학적 정의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영문 번역 표준에서도 동일한 논리로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번역협회(Translators Association of China)가 제정한 『공공 서비스 분야 영문 번역 규범(T/TAC 1-2018)』은 문화재 명칭 번역 시 원어의 글자보다 ‘기형과 기능의 등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표준에 수록된 구체적인 도자기명 번역 용례를 살펴보면, 영문 대역어가 기형의 형태적·기능적 속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恬白釉暗花云龍紋梨式[壺]

sweet-white-glazed [ewer] in the shape of a pear with finely incised dragon and cloud

白釉划花鷄冠[壺]

white-glazed cockscomb [flask] with incised decoration

褐釉剔花牡丹紋[罐]

brown-glazed [jar] with sgraffito peony design

표준은 梨式壺와 鷄冠壺를 각각 ‘Pear-shaped Ewer’와 ‘Cockscomb Flask’로 번역하여, 해당 용례에서 壺의 영문 대응어가 손잡이나 주구를 갖춘 기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牡丹紋罐의 경우 ‘Jar with Peony Design’으로 번역함으로써, 복부가 크고 둥근 항아리형 기형에는 罐이 ‘Jar’에 대응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용례에서 나타나는 대응 관계를 이미 국제적으로 더 널리 정착된 영문명 ‘Moon Jar’에 역방향으로 대입해 보면 그 정합성은 더욱 명료해진다. ‘Jar’의 표준 대응어는 문맥상 罐에 해당하므로 Moon [Jar]는 [罐]으로 치환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만약 이를 [壺]로 번역할 경우, 영어권에서는 항아리(Jar)라 부르는 대상을 중문에서는 주전자(Ewer) 계열의 용어로 지칭하게 되어 개념적 불일치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5) 실무검증

앞서 고찰한 텍스트 규범들이 실제 학술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본 절에서는 중국 도자학계의 표준 도록과 발굴 보고서의 도판을 정밀 분석하여, 텍스트 정의 이면에 존재하는 시각적 전형(Archetype)과 시대적 변화양상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중국 국가문물국 산하 문물출판사가 발행한 『중국고도자도전(中國古陶瓷圖典)』의 기형 분류와 도판을 통해 각 기형의 개념과 변화상을 확인할 수 있다.

							
北齊青釉六系划花罐		西夏黑釉剔花牡丹纹罐		宋定窑白釉盖罐		清乾隆将军罐	
							
西晋青釉印花盘口壶	明时大彬制紫砂三足壶	唐邢窑白釉执壶		明永乐青花缠枝莲纹扁壶		明永乐甜白釉暗花梨式壶	

표4. 『중국고도자도전(中国古陶瓷图典)』의 도판

이러한 기능적 분화 양상은 고고학 발굴 보고서인 『자조도자(磁灶陶瓷)』에 수록된 기형도 분류를 통해 더욱 명확히 입증된다. 아래 <표5>의 [그림 9] ‘호류(壺類) 기형도’를 살펴보면, 집호(執壺)와 주자(注子) 등 수록된 기물 전수가 액체를 따르기 위한 주구와 손잡이를 갖추고 있다. 반면, <표5>의 [그림 16] ‘관류(罐類) 기형도’에 수록된 소구관(小口罐), 사계관(四系罐) 등은 예외 없이 둥근 몸체를 가진 저장 용기 형태로 도해되어 있다.

이는 문헌상에서 간혹 나타나는 명칭의 혼용과는 달리, 기물의 형태를 정밀하게 실측하고 도해하는 고고학적 분류 단계에서 ‘따르는 기능’을 가진 기형(호)과 ‘저장 기능’을 가진 기형(관)을 뚜렷하게 구별되는 범주로 다루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방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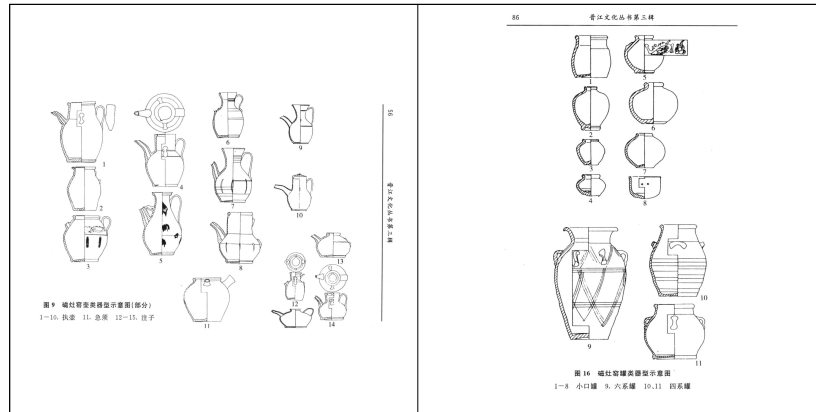


표5. 『자조도자(磁灶陶瓷)』 ‘호류(壺類)’ 및 ‘관류(罐類)’ 기형도

4) 언어인지학적 분석

오역의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인지언어학의 ‘원형 이론 (Prototype Theory)’과 ‘프레임 의미론(Frame Semantics)’의 측면에서 살펴볼 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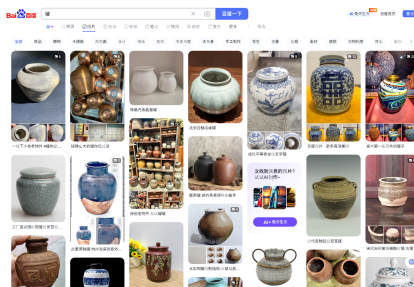


그림1. 중국 검색 포털 바이두 ‘罐’ 이미지
검색 결과 (2025년 12월 2일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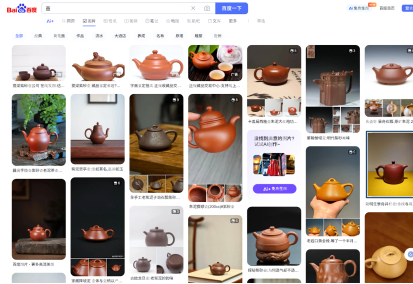


그림2 중국 검색 포털 바이두 ‘壺’ 이미지
검색 결과(2025년 12월 2일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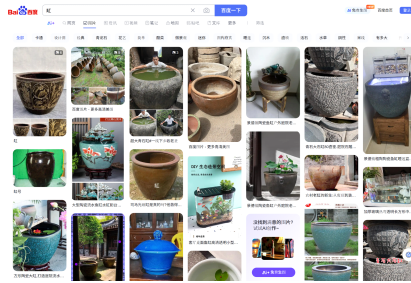


그림3. 중국 검색 포털 바이두 ‘缸’ 이미지
검색 결과(2025년 12월 2일 확인)

첫째, 원형 이론에 따르면 언어 사용자는 단어를 접할 때 그 범주의 가장 전형적인 이미지(Prototype)를 떠올린다. 바이두 검색 결과 등에서 확인되듯, 현대 중국인에게 호(壺)의 시각적 원형은 ‘손잡이와 부리가 있는 주전자’이다. 따라서 백자대호라는 명칭은 중국인에게 잘못된 원형(주전자)을 연상시키는 인지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둘째, 프레임 의미론 관점에서 항(缸)은 구연부가 밀지름이나 복부보다 크고 넓게 벌어진 투박한 실용 용기로서 ‘부엌이나 마당의 물독, 수조, 욕조’와 같은 실용적이고 투박한 ‘의미 프레임(Semantic Frame)’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순백의 고결함과 절제미를 상징하는 달항아리의 예술적 위상을

실용 용기로 격하시킬 위험이 따르기에, 번역어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관(罐)은 ‘저장과 감상’의 프레임을 공유하므로, 기형과 심상을 왜곡 없이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인지적 기호라 할 수 있다.

4. 달항아리 중문 번역 전략 및 표준안 제안

1) 제안 원칙: 표준성과 고유명사화

본 연구는 달항아리 중문 번역의 목표를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한국적 미학의 브랜드화’와 ‘국제적 통용성 확보’로 설정한다. 이를 위해 다음 두 가지 원칙을 제안한다.

첫째, 기형 명칭의 표준화이다. 중국 국가 표준(WW/T 0017) 및 기형 분류학(T/GYSP)에 근거하여, 오역의 소지가 있는 호(壺, 주전자)와 항(缸, 물독) 보다는, 기형적 등가물인 관(罐)으로 용어를 단일화한다. 이는 스코포스 이론의 목적 지향적 전략에 입각한 것으로, 학술적 엄밀성과 대중 소통이라는 서로 다른 번역 목적을 동시에 충족한다.

둘째, 명칭의 고유명사화이다. ‘달항아리’는 이제 18세기 특정 유물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를 넘어, 시공간을 초월하여 재생산되는 하나의 독자적인 ‘예술 장르(Genre)’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그 번역어인 ‘월량관(月亮罐)’은 재질이나 시기라는 물리적 제약을 넘어, 그 형상과 심상을 통칭하는 ‘고유명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제안 표준 번역안

본 연구는 스코포스 이론에 기반하여, 달항아리 번역어가 직면한 다양한

사용 맥락을 반영한 번역 목적(Skopos)에 따른 3단계 표준 번역안을 제안한다.

① 기본형: 月亮罐

가장 우선적으로 제안하는 기본형은 한국어 ‘달항아리’에 대응하는 고유명사적 표기인 ‘月亮罐’이다. 이는 불필요한 수식어를 생략하고, 대중에게 친숙한 ‘달(Moon)’의 심상과 기형학적으로 검증된 ‘관(Jar)’을 결합한 형태다. 이 명칭은 복잡한 정보를 배제함으로써 ‘달항아리’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직관적인 전달력이 필수적인 대중 매체, 전시 포스터, 아트 상품, 구어적 소통 등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표준 명칭이다.

② 확장 서술형: [속성] + 月亮罐

박물관의 소장품 분류나 경매 도록의 상세 기술, 혹은 현대 미술 작품과 같이 구체적인 정보 전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장 서술형’을 적용한다. 이 방식은 제1안인 기본형 ‘月亮罐’을 핵심어로 삼고, 그 앞부분에 기물의 재질, 기법, 색상, 매체적 특성 등을 나타내는 ‘속성 수식어’를 유동적으로 결합하는 개방형 구조를 띤다.

예를 들어 재질을 강조해야 할 때는 ‘白瓷月亮罐’, ‘玻璃月亮罐’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이는 고유명사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개별 기물의 물리적 특성을 유연하게 확장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③ 학술형: 朝鮮王朝白瓷月亮罐

마지막으로, 소장품 등록 대장이나 학술 논문, 정밀 실측 보고서 등 엄격한 정보 기술이 요구되는 문헌을 위해 ‘학술형’ 표준인 ‘朝鮮王朝白瓷月亮罐’을 제안한다.

최근 ‘달항아리’는 현대 도예, 회화, 미디어 아트, 디자인 등 다양한 예술 영

역에서 창조적 모티프로 활용되며 그 지변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달항아리가 단순한 유물을 넘어 시대를 관통하는 미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흐름이다. 다만, ‘달항아리’라는 명칭이 현대 예술 전반에서 폭넓게 통용되는 상황일수록, 그 영감의 원천이자 근원이 되는 ‘18세기 조선 백자 달항아리’를 학술적으로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규격(높이 40cm 이상), 제작 시기(17~18세기), 형태적 특징이 엄격하게 정의된 실제 유물을 중국어로 지칭할 때, 이 학술형 표준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朝鮮王朝¹⁵⁾白瓷月亮罐’ 표기는 [연대/국적] + [재질] + [고유명] + [기형] 정보를 모두 갖춘 완전 표기 방식으로, 이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현대적 변용 작품들과 구분하여 ‘그 시대의 오리지널 달항아리’의 역사적·물질적 정보를 오차 없이 명확하게 지칭할 수 있다.

구분	구조적 공식	중문 표기	정의 및 특징
① 기본형	[고유명사화]	月亮罐	• 정의: 한국어 '달항아리'에

15) 시대 명시의 기준을 ‘朝鮮王朝’ 채택의 논거: 본 제안은 중국 국가 표준(WW/T 0017)의 3단 명명 원칙(연대+특징+통칭)을 준수하되, 시대 표기에 있어 번역학적 ‘명시화 전략’을 적용하여 ‘朝鮮王朝’를 표준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원어(SL, 한국어)의 문맥 속에 암시된 정보를 도착어(TL, 중국어)에서 명확히 드러내어 오독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논거는 다음과 같다.

- 1) 지정학적 혼동 방지: 현대 중국어 표준어 체계에서 ‘조선(朝鮮, Cháoxiǎn)’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이하 북한)’을 지칭하는 약칭으로 널리 통용된다. 따라서 단순히 ‘朝鮮白瓷’로 표기할 경우, 중국 대중이나 제3국 수용자에게 해당 기물이 ‘현대 북한의 공예품’이라는 오인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 2) 학술적 중의성 해소: 과거 통용되던 ‘이조(李朝, Yi Dynasty)’는 일제 식민사관의 잔재일 뿐만 아니라, 중국 사학계에서 베트남의 ‘리 왕조(Ly Dynasty, 1009~1225)’를 지칭하는 학술 용어와 중첩된다. 이는 대상의 특징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왕조(朝鮮王朝)’라는 표기를 통해 유물의 제작 시기가 ‘근세 왕조’임을 분명히 하고, 현대적 정치 이슈와 분리된 순수한 예술사적 맥락을 확보한다.

	[고유명] + [기형]		대응하는 고유명사적 표기 • 특징: 불필요한 수식어를 생략하고 '달(Moon)'의 심상과 '관(Jar)'의 기형만을 결합하여 브랜드 정체성을 극대화함
② 확장 서술형	[개방형 결합] [속성] + 월량관 [속성: 재질, 기법, 색상, 매체 등 특징]	白瓷月亮罐	• 정의: 기본형을 핵심어로 삼고, 앞부분에 특징적 속성을 유동적으로 결합하는 방식. • 특징: 현대 미술 작품(사진, 회화 등)이나 특정 재질을 강조해야 하는 경우 유연하게 확장 가능
③ 학술형 (Academic Standard)	[완전 표기] [연대] + [속성] + [고유명] + [기형]	朝鮮王朝白瓷月亮罐	• 정의: 국적, 연대, 재질, 기형 정보를 모두 갖춘 학술적 완전 표기. • 특징: 중국 국가 표준(WW/T 0017)의 3단 명명 원칙(연대+특징+통칭)을 근접하게 준수한 명칭

표6. 제안 표준번역안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 문화 유산인 '달항아리'의 중문 번역 표기가 겪고 있는 혼란과 비대칭성을 진단하고, 중국의 문물 등재 표준 및 기형 분류 체계에 입각하여 가장 타당한 표준 번역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도자 용어의 통시적 분화 과정을 추적하여, 한국어 '항아리'와 중국어 '호(壺)', '항(缸)' 사이의 개념적 불일치를 규명하였다. 특히 현대 중국의 표준 분석을 통해, 주전자형 기형인 '호(壺)'와 실용적 범용 용기인 '항(缸)', 그리고 형태적 실루엣이 상이한 '준(尊)'이 항아리의 대역어로 부적합함을 논증하였다.

둘째, 기형학적 정의와 실무적 전형 분석을 통해 '관(罐)'의 정당성을 입증

하였다. ‘관’은 입이 넓고 배가 부른 저장 용기를 지칭하는 표준 용어로서, 달항아리의 형태적 특성 및 예술적 위상과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원형 이론과 프레임 의미론을 적용하여 ‘호(壺)’와 ‘항(缸)’의 인지적 부적합성을 분석하고, ‘관(罐)’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국번역협회 표준(T/TAC 1)의 영문 등가성 검증을 통해 ‘Moon Jar’와의 번역 정합성 또한 확보하였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달항아리’의 브랜드 정체성을 담은 ‘月亮罐’을 핵심어로 설정하고, 사용 목적에 따라 ①기본형(月亮罐), ②확장 서술형([속성]+月亮罐), ③학술형(朝鮮王朝白瓷月亮罐)으로 세분화된 3단계 명칭 체계를 수립하였다. 이는 기형학적 실증을 번역학 이론(등가성, 스코포스)의 검증 틀로 활용한 결과로, 학술적 엄밀성과 실무적 활용성을 동시에 충족한다.

본 연구는 관습적으로 혼용되던 도자 용어에 대해 번역학 이론의 관점에서 기형학적 실증 분석을 적용하여, 한국 달항아리의 문화적·예술적 정체성을 중국어권에서 명확히 정립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첫째, 한·중 도자 용어의 제도적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기존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던 여러 중국어 표기가 중국의 국가 표준 및 분류 체계와 기형학적으로 부합하지 않음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박물관 및 관련 기관이 소장품의 명칭을 부여하거나 번역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둘째, ‘달항아리’의 고유한 심미적 가치를 중국어권에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형태적 등가물인 ‘관(罐)’과 고유명사적 성격의 ‘월광(月亮)’을 결합한 ‘月亮罐’을 표준안으로 제안함으로써, 달항아리가 단순한 생활 용기가 아닌 독자적인 미학을 지닌 예술품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언어적 정합성을 높였다.

셋째, 번역의 명시화 전략을 통해 역사적·지정학적 오독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시대 표기에 있어 ‘조선왕조(朝鮮王朝)’를 채택함으로써, 현대 중국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북한’과의 혼동이나 ‘이조(李朝)’ 표기의 학술적 중의성을 해소하고, 유물의 역사적 맥락을 명확히 전달하는 표기 원칙을 정립하

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문물 등재 표준 및 기형 분류 체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번역학적 이론을 적용하여, 기존의 용어 혼란을 해소하고 달항아리의 예술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확장 및 파생시킬 수 있는 언어적 토대로서 ‘달항아리 중문 번역 표준 제안’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실무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남긴다.

본 연구는 현시점 한국 도자 중 가장 상징적이고 시급한 현안이라 판단되는 ‘달항아리’라는 단일 기형에 집중하여 분석 모델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한·중 간 개념 불일치가 존재하는 여타 도자 용어 전반에 대한 개별적인 표준 제안까지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연구 대상의 한계가 있다.

제안된 표준안의 타당성을 문헌과 표준 규범을 통해 입증하였으나, 실제 중국 현지의 대중과 전문가 집단에게 이 용어가 수용되고 정착되는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하기에는 연구 기간의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

參考文獻

- 국립고궁박물관, 『백자 달항아리』, 서울: 놀와, 2005.
- 국립중앙박물관, 『2015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품 명칭 용례집』,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15.
- 김규림, 「조선 17~18세기 백자원호(白磁圓壺)의 조형과 성격」, 『한국문화연구』 제36권, 153-180,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9.
- 김현아, 「박물관에서 사용하는 도자공예 용어의 번역양상과 전문용어로서의 적합성」, 『한국문화연구』 제32권, 187-21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7.
- 김현아, 「식민지시기 유입된 일본어 도자공예 용어가 現代자공예 용어에 미친 영향」, 『일본연구』 제62권, 269-287,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14.
- 김혜림, 『김혜림의 중국어 통역번역사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06(2022 개정).
- 김혜림, 모해연, 장애리, 「미술용어의 중국어 번역 실태 조사 및 번역 방안 연구」, 『중국어문학회』 제64권, 279-309, 중국어문학회, 2018.
- 문화재청, 『문화재명 외국어 표기 기준 마련 연구』, 대전: 문화재청, 2010.
- 문화재청, 『문화재명칭 영문 표기 용례집』, 대전: 문화재청, 2014(2019 개정).
- 박현주, 「박물관 한국 도자기 유물명 번역의 통시적 고찰 — 제국의 아카이브에서 주체적 표상으로」, 『번역학연구』 제25권, 4호, 109-143, 한국번역학회, 2024.
-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미술 다국어 용어사전』, 서울: 이안북스, 2023.
- 유홍준, 『유홍준의 한국미술사 강의 5: 조선 도자』, 서울: 놀와, 2023.
- 이준광, 『조선의 백자, 군자지향 君子志向』, 서울: 은행나무, 2025.
- 北京市市场监督管理局 (Beijing Municipal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文物艺术品数据元规范 第3部分: 陶瓷 (Specification for

- data elements of antique art — Part 3: Pottery and porcelain』, 北京: 北京市市场监督管理局, 2022.
- 冯先铭 主编, 『中国古陶瓷图典 (Illustrated Dictionary of Ancient Chinese Ceramics)』, 北京: 文物出版社, 1998.
- 何振良·林德民 编著, 『磁灶陶瓷 (晋江文化丛书·第3辑)』, 厦门: 厦门大学出版社, 2005.
- 厦门市古代艺术品研究会 (Xiamen Society for Ancient Art), 『古陶瓷样品命名规则 (Rules of nomenclature for ancient ceramic samples)』, T/GYSP 2—2017, 厦门: 厦门市古代艺术品研究会, 2017.
- 中国翻译协会 (Translators Association of China), 『中国文化遗产领域英文译写规范 (Specifications for the use of English for Chinese cultural heritage)』, T/TAC 12—2025, 北京: 中国翻译协会, 2025.
- 中华人民共和国国家文物局 (National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馆藏文物登录规范 (Specification for registration of cultural relics in the collection of cultural institutions)』, WW/T 0017—2013, 北京: 中国标准出版社, 2013.
- Lawrence Venuti,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5)

기사, 인터넷 사이트

국가유산청 <https://www.khs.go.kr/main.html>

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museum.go.kr/MUSEUM/main/index.do>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검색, 백자 달항아리

<https://www.museum.go.kr/MUSEUM/contents/M0502000000.do?schM=view&searchId=search&relicId=941>

국립중앙박물관, 金炫廷, 「节制之美的升华, 纯白的朝鲜满月形白瓷罐 策展人推荐精品」

https://www.museum.go.kr/CHN/contents/H0401000000.do?relicRecommendId=519729&schM=view&utm_source=chatgpt.com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 윤경재, “평창 성화대를 달항아리로 만든 이유?”, 『중앙일보』, 2018년 4월 2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486668>
- 정형모, “백자에 인생 건 그녀… 60cm 달항아리 품다”, 『중앙일보』, 2012년 3월 7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7558947>
- 주홍콩한국문화원, 【新聞稿】駐香港韓國文化院 - 第14屆韓國十月文化節 <https://hk.korean-culture.org/hk/1550/board/1146/read/134295>
- 주홍콩한국문화원, 中日韓藝術節電子圖錄 <https://hk.korean-culture.org/hk/932/board/676/read/125878>
- 한국미술 다국어 용어사전, 달항아리 http://www.gokams.or.kr/visual-art/art-terms/glossary/art_view.asp?id=x=94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달항아리 <https://encykorea.aks.ac.kr/Article/Search/%EB%8B%AC%ED%95%AD%EC%95%84%EB%A6%AC?field=&type=&alias=false&body=false&containdesc=false&keyword=%EB%8B%AC%ED%95%AD%EC%95%84%EB%A6%AC>
- 中國古代藝術學會(Society for the Ancient Chinese Art), “這些不完美的韓國”月亮罐“為何能賣出數百萬美元? - Why these imperfect Korean ‘moon jars’ sell for millions” <https://www.artsaca.com/post/moonjar>
- Baidu 百度 <https://www.baidu.com>
- Christie's, Lot 177 <https://www.christies.com/en/lot/lot-6417575>
- Sotheby's, Lot 129 <https://www.sothebys.com/en/buy/auction/2021/important-chinese-art-2/a-luminous-white-moon-jar-korea-joseon-dynasty-2>
- The British Museum, moon jar https://www.britishmuseum.org/collection/object/A_1999-0302-1
- The Met, 月亮壺 (白瓷大壺) <https://www.metmuseum.org/zh/art/collection/search/45432>

Abstract

A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the Chinese Designation of the Moon Jar – Focusing on the Current Status of Chinese Translations and a Comparative Analysis of Vessel-Form (Typological) Classification

Eo Ho Yeun, Lee A Hyoung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current proliferation of inconsistent Chinese translations of the Joseon white porcelain moon jar—which has recently emerged as an emblematic symbol of K-Art—and to propose a standardized translation framework that simultaneously satisfies academic coherence and public communicability.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s China's official cultural heritage registration standards and typological definitions of ceramic vessel forms, seeking a translation solution grounded in authoritative classification systems.

The findings reveal that existing Chinese renderings of dalhangari (moon jar) exhibit a complex many-to-many pattern of confusion, resulting from the multilayered semantics of the Korean source term combined with the absence of clear translation criteria. Several widely used translations are shown to entail potential mistranslations that contradict the artistic and morphological values inherent in the source term, or risk diminishing the cultural and symbolic status of the vessel within the Chinese-speaking context.

In response, this study conducts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authoritative sources, including Chinese national and institutional standards, established naming conventions, and relevant scholarly literature,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vessel-form terminology.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hu (壺), which in modern Chinese ceramic taxonomy denotes a pouring vessel equipped with a spout (liu, 流) and handle (bing, 柄), is morphologically incompatible with the moon jar. Likewise, gang (缸) entails both formal incongruence and the risk of status depreciation, while zun (尊) gives rise to discrepancies in functional and typological definition. By contrast, guan (罐), defined as a deep storage vessel

with a wide mouth and a full, rounded body, is shown to correspond most closely to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moon jar and thus constitutes the most appropriate terminological choice.

On this basis, drawing on the principles of equivalence theory and Skopos theory in translation studies, this research proposes a three-tiered standardized translation scheme: (1) a basic form, Yueliang Guan (月亮罐, “moon jar”), designed for broad public communication and contemporary artistic reinterpretation; (2) an extensible form, [attribute] + Yueliang Guan, allowing flexible modification according to material, technique, or other attributes; and (3) an academic form, Chaoxian Wangchao Baici Yueliang Guan (朝鲜王朝白瓷月亮罐, “Joseon Dynasty White Porcelain Moon Jar”), which conforms to Chinese ceramic nomenclature standards in scholarly contexts.

Through empirical typological analysis, this study corrects inaccuracies in existing translations and provides a practical scholarly foundation for establishing and disseminating the cultural and artistic identity of the moon jar within the Chinese-speaking world.

Key words : White Porcelain Moon Jar, Large White Porcelain Jar (Baici Dahu, 白磁大壺), Yueliang Guan (月亮罐), Terminology Standardization, Ceramic Terminology, Chinese Vessel-Form Classification

투 고 일 : 2026. 1. 10. / 심 사 일 : 2026. 1. 15.~ 2026. 2. 15. / 게재확정일 : 2026. 2. 20.

